



미 증시, 우-러 협상 실망감, 물가 압력 확대 등에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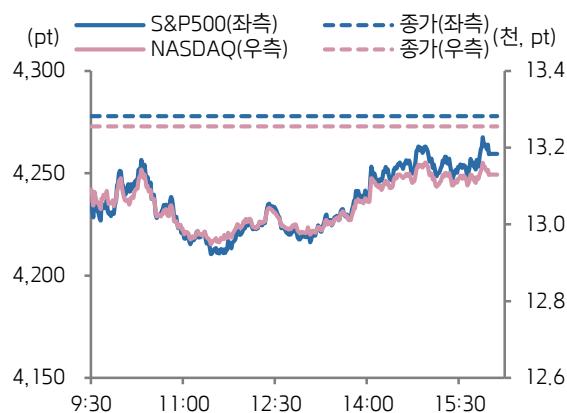
미국 증시 리뷰

10 일 (목) 미국 증시는 우크라이나-러시아간 협상 실망감, 미국 물가 압력 확대 등에 하락.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터키에서 진행된 우-러간 고위급 협상은 “진전이 없었다”고 언급하며 장 초반 부담 요인으로 작용. 2 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7.9% 상승(예상 +7.9%, 전월 +7.5%)하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지만, 근원 지표는 전년대비 6.4% 상승(예상 +5.9%, 전월 +6.0%)하면서 예상치 상회하며 물가 압력도 확대. S&P500 지수는 -1.1% 출발 후 협상 실망 매물 출회로 낙폭을 확대했지만, 오후 낙폭을 축소하며 마감. 전일 급등한 성장주 중심으로 하락하면서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비교적 커짐(다우 -0.34%, S&P500 -0.43%, 나스닥 -0.95%, 러셀 2000 -0.23%)

쿨레바 장관에 의하면 협상에서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요구사항들을 종합하면 결국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요구했으며, 우크라이나는 아직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언급. 전일 일부 완화되었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됨에 따라 위험자산 선호심리는 다시 위축됨. 다만 국제유가는 푸틴 대통령이 “비우호적인(unfriendly)” 서방국가들에게 에너지 수출 계약들은 지키겠다는 발언에 하락했고 VIX 지수(-6.8%, 32.5pt)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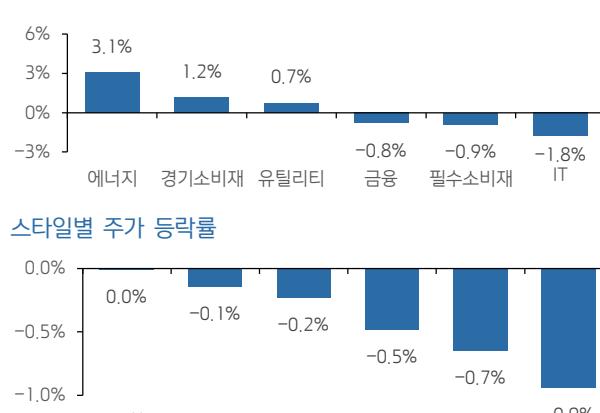
업종별로 살펴보면 에너지(+3.1%), 경기소비재(+1.2%), 유틸리티(+0.7%) 등이 상승한 반면, IT(-1.8%), 필수소비재(-0.9%), 금융(-0.8%) 등은 하락. 종목별로 애플(-2.7%), 테슬라(-2.4%) 등 대형 기술주들은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아마존(+5.4%)은 20 대 1 액면분할과 100 억 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발표에 급등. 마이크론 테크놀러지(-4.7%)와 AMD(-4.1%) 등 반도체주들은 러시아의 특정 원자재 수출 금지 보복 조치로 공급망 차질 지속이 예상되면서 하락. 한편 전일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크라우드스트라이크(+12.5%)는 실적 및 가이던스 서프라이즈에 급등.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지수	가격	외환시장			
			변화	지수	가격	
S&P500		4,259.52	-0.43%	USD/KRW	1,228.34	-0.48%
NASDAQ		13,129.96	-0.95%	달러 지수	98.56	+0.6%
다우		33,174.07	-0.34%	EUR/USD	1.10	-0.82%
VIX		30.39	-6.35%	USD/CNH	6.33	+0.07%
러셀 2000		2,011.67	-0.23%	USD/JPY	116.12	+0.25%
필라. 반도체		3,211.07	-2.17%	채권시장		
다우 운송		15,322.05	+1.18%	국고채 3년	2.270	-1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2.721	+0.4bp
Eurostoxx50		3,651.39	-3.04%	미국 국채 2년	1.702	+2.3bp
MSCI 전세계 지수		672.53	+2.6%	미국 국채 10년	1.992	+3.9bp
MSCI DM 지수		2,881.78	+3.01%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090.67	-0.49%	WTI	105.67	-2.79%
MSCI 한국 ETF		68.13	-3.02%	금	2000.3	+0.6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check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3.02%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1.87%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92%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30.0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미국 소비자물가 및 ECB 정책 서프라이즈 결과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2. 전거래일 급등한 대선 관련 업종들의 추가 상승 여부
3. 북한의 신형 ICBM 발사에 따른 한반도 리스크로 인한 안전자산선호심리 확산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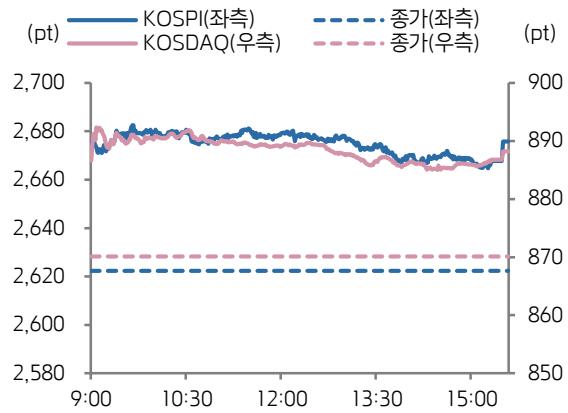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미국 2 월 소비자물가는 7.9%(YoY, 컨센 7.8~7.9%)로 예상에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을 기록했지만, 1 월(7.5%)에 비해서도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가격변동성이 큰 에너지 및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6.4%, 컨센 5.9%)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점도 인플레이션 부담을 자극하고 있는 모습. 상반기 미국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전망은 유효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에너지 및 농산물 가격 급등세의 지속 기간에 따라 연간 인플레이션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상존. ECB 도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자산매입프로그램 종료 시점을 올해 3 분기로 앞당겼다는 점도 부담 요인. 우크라이나 사태가 유로존의 성장을 전망(4.2%→3.7%)에 하방 위험을 만들어 내고 있으나, 올해 물가 전망치(3.2%→5.1%)를 큰 폭 상향했다는 점에 미루어보아 ECB 역시 인플레이션 대응이 우선 순위였던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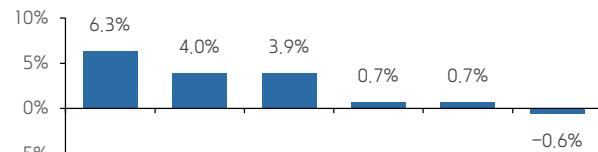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가 중앙은행과 시장 참여자들에게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및 공급난 장기화 우려를 가중시키는 돌발 변수였던 것으로 판단. 문제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3 차 협상은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지만, 향후 4 차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는 점은 전쟁 당사자 국가 모두 교전의 장기화를 원치 않음을 시사. 증시 변동성 자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나, 2 월 중순 이후 극심한 조정을 통해 시장에서도 상당부분 소화하고 있는 재료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조정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금일 국내 증시는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재부각,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경계심리 등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미국 장 마감 후 전해진 북한의 신형 ICBM 미사일 발사 및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이슈가 국내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부상시키고 있는 상황. 다만, 과거 한반도 리스크의 증시 영향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 만큼 금번에도 유사한 경로를 따를 것으로 보이며, 일부 대북 관련 테마주, 방산주들의 주가 변동성만 확대될 것으로 전망. 또한 여전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장의 중심에 있는 만큼 관련 뉴스플로우에 따라 지수 움직임이 급변하면서 매도 욕구를 자극할 수 있으나, 현재 국내 증시는 과매도 영역에 진입 했으므로 매도 대응은 지양해야한다는 기준의 관점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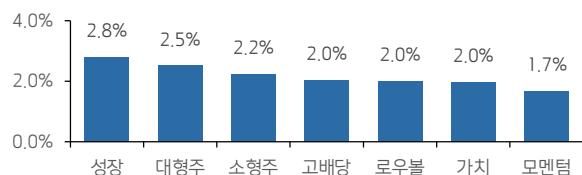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자료: Bloomberg, Quanti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